

3) 3월

(1) 삼진날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한다. 이때는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고 하여 제비맞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다. 봄에 처음으로 보는 제비에게 절 세 자리를 하고 왼손으로 옷고름을 줄였다가 다시 여미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이때는 또한 진달래가 만발할 때이다. 날씨가 따뜻하여 주로 부녀자들이 간단한 취사도구를 가지고 계곡을 찾아가 하루를 즐긴다.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꽃으로 전을 지져 먹는데 이것을 '화전'이라고 한다. 화전놀이를 할 때는 화전가를 부르며 유흥을 즐겼다고 한다.

삼진날에 즈음하여 비로소 나비가 날기 시작하는데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그해 처음 보면 만사가 태평하지만, 흰 나비를 먼저 보면 상복을 입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한다. 3월이 되면 꿩들이 알을 낳는다. 속담에 '꿩먹고 알먹고'라는 말이 있는데 3월이면 꿩알 주워먹기를 한다. 이때 꿩알을 주워먹으면 몸에 좋다고도 하고 농사가 잘된다고도 하여 주로 아이들이 산이나 들에 꿩알을 주으러 다닌다.